

올 어바웃 러브
All About Love

기획초대전

ALL ABOUT LOVE

2022. 5. 19-7. 17

관영준 Young Joon Kwak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2022 아라코미술관 기획초대전
을 어바웃 러브:
곽영준&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2022. 5. 19 - 2022. 7. 17
아라코미술관 제1, 2 전시실

참여작가 곽영준,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큐레이터 전지영
코디네이터 이현화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희
공간디자인 이민희
영문번역(리플렛, 월텍스트) 정경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라코미술관
후원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양원선 재단,
네덜란드 몬드리안 재단
협력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연구소

아라코미술관
(03087) 서울 종로구 동숭길 3
02-760-4850
www.arko.or.kr/artcenter
인스타그램, 트위터: @arkoartcenter
페이스북: ARKOArtCenter
유튜브: ARKO Art Center

관람시간
오전 11시 - 오후 7시
매주 월요일 휴무
관람료 무료

2022 ARKO Art Center Invitational Exhibition
All About Love:
Young Joon Kwak &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2022. 5.19 - 2022. 7. 17.
ARKO Art Center, Gallery 1, 2

Artists Young Joon Kwak,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Curator Angela Jeeyoung Chun
Coordinator Hyeonhwa Lee
Graphic Design Studio Hik
Exhibition Design Minhee Lee
Translation (Leaflet, Walltext) Joyce Chung

Hosted by ARKO Art Center, Arts Council Korea
Sponsored by Netherlands Embassy in Korea,
YWS Foundation, Mondriaan Fund
In cooperation with CGSI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Sogang University

ARKO Art Center
3 Dongsung-gil, Jongno-gu, Seoul, 03087
+82-2-760-4850
www.arko.or.kr/artcenter
Instagram, Twitter: @arkoartcenter
Facebook: ARKOArtCenter
YouTube: ARKO Art Center

Opening Hours
11am - 7pm
Closed on Mondays
Admission Free

2022년 아라코미술관 기획초대전 《을 어바웃 러브: 곽영준&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는 국제 무대에서 주목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곽영준과 한국계 네덜란드인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다. 이들 작업의 공통점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분법적 정의,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기록 방식, 가부장적 권위 등을 해체한다는 데 있다. 두 작가는 전시에서 개인과 사회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예술적 실천으로서 보여준다.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는 다른 인종간의 국제 입양 이면에 있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관습을 드러내고 이에 저항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켜야 했던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왜 입양 국가는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 모국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지 못했는지” 질문한다. 그의 작업은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국제 입양 과정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치유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곽영준의 조각과 영상 작품은 가부장적인 시선과 타자화하는 폭력성에 은모임으로 맞서는 귀여운 몸짓을 포착한다. 작업에서 나타나는 신체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의해 정의될 수 없으며 각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일종의 그릇인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과 외부의 통념이 충돌하는 극도로 정치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는 이를 통해 이성애적 관점을 넘어서 퀴어와 트랜스젠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연대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다.

《을 어바웃 러브: 곽영준&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두 작가는 독립적으로 존재해 보이나 실은 연결되어 있는 개별 사회 구성원이 공감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들의 작품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이라도 사랑 안에서 이해를 시도한다면 조화로운 사회 혹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리고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차별과 적대심을 직시하고 서로의 존재와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시사한다.

* 전시의 제목 “을 어바웃 러브”는 2021년도에 타계한 사회운동가이자 페미니즘 사상가인 벨 훅스가 1999년에 출판한 동명의 책 제목을 참조한다. 훅스는 이성애의 한정된 사랑이 아니라 일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보다 큰 사랑의 실천을 강조해왔다. 두 작가는 훅스의 가르침에서처럼 과거의 모순과 부조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 삶을 변화로 이끄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

ARKO Art Center is pleased to present the 2022 Invitational Exhibition, *All About Love: Young Joon Kwak &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The exhibition invites Korean-American artist Young Joon Kwak and Korean-Dutch artist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two internationally active artists of Korean descent. It is the first museum exhibition in Korea by the artists who focus on themes of the deconstruction of binary systems in society, Western-centric history writing, and patriarchal authority. The exhibition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artists engage with their work to overcome and heal collective traumas, and the practices that develop a sense of community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Chang dismantles myths and colonial narratives behind transnational and transracial adoption and presents the stories of those affected by forced adoption. By honoring and centering two young mothers, who were coerced to give up their children for the transnational adoption industry, the work raises urgent and fundamental questions, “why the adoption countries, including Korea, failed to protect their children and the mothers from being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adoptees being alienated from their motherland countries.” Chang’s work is an indictment of unjustified violence against human rights in transnational adoption as well as a practice that enables us to restore our humanity and to heal those who have been traumat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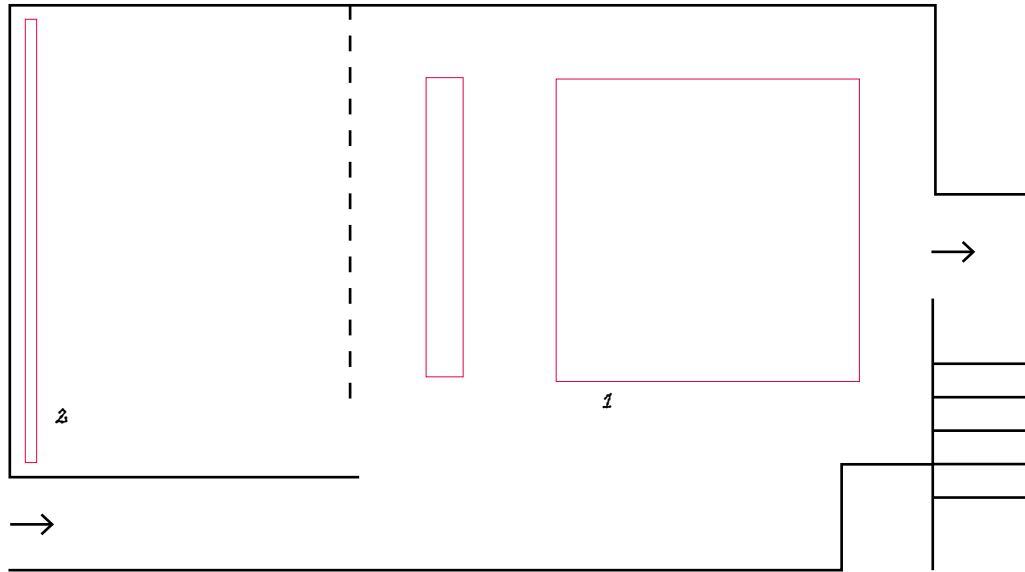
In Kwak’s work, unruly movements and a swirl of queer gestures embody a form of resistance against the patriarchal gaze and the violence of objectification. These aesthetic strategies are grounded in Kwak’s desire to uncover different ways of understanding our bodies and discovering new forms of intimacy across social differences. Kwak also focuses on the multiplicity and hybridity of identities, helping audiences explore and question their own identities and have a new understanding in the bodies of queers and transgenders. Their work explores otherness in their self and embraces their community in collective action.

All About Love: Young Joon Kwak &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intends to reveal how this transformative love has the potential to unravel social problems. The two artists, seemingly unrelated and independent, are connected to the society in which we depend on each other to build a community through empathy and solidarity. Their works correspond to the belief in love that builds a better society and community, and belief in courage that battles against wide-spread systemic discrimination.

* The exhibition takes its title from *All About Love*, a groundbreaking book by bell hooks published in 1999. In the book, hooks provides new ways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love that is more than heterosexual romantic, but a transformative love that brings change to everyday lives. The two artists’ practices in love lead us to collectively confront the injustices of the past, alienation, and hostility in oblivion, as in the teachings of hooks.



장세진
(사라 반 데어 헤이드)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1

<어머니 산신(山神) 기관>, 2017~
모터, 플라스틱, 페이퍼 마세, 판넬, 사운드, 드로잉,
텍스트, 가변설치

1

The Mother Mountain Institute, 2017~
Motor, plaster, paper mache, panel, sound,
drawings, texts, size variable

2

<브뤼셀, 2016>, 2017
HD/DCP, 디지털 필름, 33분

2

Brussels, 2016, 2017
HD/DCP, digital film, 33 min

1

어머니 산신(山神) 기관

<어머니 산신 기관> 프로젝트는 2017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인 대형 키네틱 사운드 설치 작품이다. 우주를 상징하는 이 작업은 산을 그린 드로잉과 텍스트를 포함한다. 현장설치물 안에 들어가면 국제 입양으로 자식을 잃은 두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어머니 산신 기관>은 국제 입양의 이면에 있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관습을 드러내고 이에 저항한다. 실제로 부모를 잃어 고아라고 알려진 200,000에서 300,000명의 국제 입양 사례 중 95%는 고아가 아니었으며 그들의 어머니들은 살아있었다. 작가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운영되고 수익성을 창출한 국제 입양 산업으로 인해 목살되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이 작품을 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제 입양 제도가 자리잡게 된 한국을 모델 삼아 제국주의적인 전쟁에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들도 국제 입양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국가들은 국제 입양의 공급자로 역할하며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 아이를 입양시켰다.

이 작업은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들과 헤어진 어머니들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기린다. 방 크기의 박스는 19세기 유럽의 태양계 천체 모형(orrery)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박스의 내부에는 어머니와 아이를 상징하는 해의 달이 공전한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산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제작된 이 작품은 국제 입양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씬터이자 명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어머니 산신 기관> 프로젝트의 연구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영적인 자연을 그린 드로잉과 수채화도 작업의 일부로 전시된다.

2

브뤼셀, 2016

<브뤼셀, 2016>은 태어나자마자 이별해 만나지 못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형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16년 3월 브뤼셀 폭탄 테러, “브렉시트” 국민 투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브뤼셀의 불안정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도시의 풍경을 기록하며 브뤼셀의 국가 기관들, 뷔일스 미술관, 푸르르 공원을 그리고 있다. 또한 동료 작가들, 퀴어 모임, 시리아 난민과 롬인 난민 이웃과 같이 작가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포착한다. 브뤼셀은 작가의 시각을 통해 또 다른 현실처럼 존재하게 된다.

이 작품은 작가가 뷔일스 레지던시에 참가한 시기에 제작되었다. 그는 레지던시의 참가자이자 벨기에의 거주자인 동시에 이방인이기도 한 시각으로 롬인, 시리아 난민과 같이 미술관의 변두리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유럽의 옛 식민지에서 온 이민자들과 유색인종을 향한 반감을 목격하기도 하는 작가는 우리 사회에 편재한 적대감을 더 넓은 정치적 맥락에서 생각해보길 말한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시적인 재현 방식은 브뤼셀과 유럽 연합의 기저에 있는 “국가 서사”의 이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러 이야기들을 다층적인 구조로 중첩시키는 이 작품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작가에게 있어 긴밀한 유대란 강아지들과 산책하고, 친구의 아기와 함께하며, 길거리의 유기묘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한다.

The Mother Mountain Institute

As an ongoing project that began in 2017, *The Mother Mountain Institute* consists of a large-scale kinetic sound installation, representing the universe, accompanied by a series of drawings of mountains, and text. Inside the room the visitor can hear two testimonials of mothers whose children were stolen and trafficked to the transnational industry.

The Mother Mountain Institute aims to contribute to dismantle the colonial narratives and myths surrounding the transnational adoption system. Myths that adoptees were orphans, while in reality for example 95% of the Korean mothers of the 200,000-300,000 children who were sent abroad for adoption were or are still alive. The work was created based on the artist's desire to bring forward the stories of the mothers who have been silenced by the lucrative adoption industry, often operating from Christian, evangelical backgrounds.

A global industry that found its inception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and its model has been copied to other countries, and follows a pattern where former colonized countries or countries that have been subject to imperialistic wars (such as the Korean War), have been serving for decades as the suppliers for the adoption market in the US, Europe and Australia.

The installation piece honors the mothers who lost their children, the children's hearts missing their mothers, and the invisible power surrounding them. Inside the room-size box, which depicts an expanded European orrery of the 19th century, the sun and moon orbit around each other, symbolizing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looking for each other. Alternately the mountain speaks, and shares words of consolation and the work itself becomes a shelter and a meditation space to heal the collective emotional wounds caused by international adoption. Drawings and watercolors portraying mountains which are known for their spiritual qualities that have

been made in the countries where the artist traveled to conduct research for *The Mother Mountain Institute* are also exhibited as part of the work.

2

Brussels, 2016

Brussels, 2016 is framed as a letter to artist Sara Sejin Chang's unknown mother in South Korea. Set in the months following the Brussels bombings of March 2016, and just before the "Brexit" referendum, Chang's film captures the city of Brussels at a vulnerable moment. Functioning as a portrait of the city, the film shows Brussels' European institutions, WIELS, lush parks, as well as the various communities that intersect in Chang's life: her fellow artists, her queer friendship group, and her Roma and Syrian refugee neighbours. Brussels appears as a series of parallel realities, brought together by Chang's gaze.

Chang made the film while participating in the WIELS Residency Programme, where she uses her position as both inside and outside an institution and a country to consider the uncertain status of WIELS's unofficial residents: a community of displaced Roma and Syrian refugees living around the edges of the art centre. In presenting their makeshift home and in reflecting on the antagonism she has witnessed towards immigrants from former colonies and Belgian people of colour, Chang invites the viewer to consider the broader political narrative within which such hostility has arisen. In her poetic rendering, she exposes the "foundational fictions" that underlie the city of Brussels, and the united Europe it purports to stand for. Through the encounters that structure the film, Chang proposes that intimate interactions are necessary for us to collectively repair our society and imagine how things could be. Such interactions include Chang going on a walk through the woods with her dogs, meeting a friend's newborn baby, getting to know a stray cat, and falling in love.

어머니들

한국 어머니 2017

목소리

어머니: 박솔론

산: 최중낙

텍스트

산: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아네스카 폴스카, 금강스님(미항사 전 주지스님), 박진여(미래와 과거를 보는 여인), 조전환

특별히 감사한 분: 정선 베이센스

감사한 분: 이동영, 김정만, 김소리, 기무라벨,

김스토커, 헝크 슬래거

제작: bak, 네덜란드 윌트레흐트

지원: 네덜란드 몬드리안 재단

영한 번역: 강신우

방글라데시 어머니 2020

목소리

어머니: 김재영

산: 최중낙

텍스트

산: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아네스카 폴스카, 금강스님(미항사 전 주지스님), 박진여(미래와 과거를 보는 여인), 조전환, 다리오 에스코바르(레바논 까디샤 계곡의 은둔자), 나빌 라흐만

네덜란드 재단 샤를라 커뮤니티의 세련함과 현장 연수원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분: 나빌 라흐만, 아헤사 솔타나, 다이아나 켈벨 베타쿠르, 다카 아트 서밋팀

지원: 네덜란드 몬드리안 재단

영한 번역: 강신우

산들

2020 방글라데시, <실레, 샤 수피 세디 자한.

지르>, 실레, 2020년 2월 4일, 13 × 20.8cm

2020 방글라데시, 실레, 호리 푸르, 2020년 2월 3일, 13 × 20.8cm

2020 방글라데시, 실레, 호리 푸르, 2020년 2월 3일, 13 × 20.8cm

2020 방글라데시, 라라강, 샤리, 2020년 2월 3일, 13 × 20.8cm

2017 레바논, 까디샤 계곡, <다리오 에스코바르의 동굴>, 2017년 10월 7일, 20.8 × 13cm

2017 레바논, 까디샤 계곡, <다리오 에스코바르의 동굴>, 2017년 10월 7일, 13 × 20.8cm

2017 레바논, 까디샤 계곡, <마리나/마리노 수도승의 동굴>, 2017년 10월 7일, 13 × 20.8cm

2017 레바논, 까디샤 계곡, 2017년 10월 7일, 13 × 20.8cm

2017 레바논, 까디샤 계곡, 2017년 10월 7일, 13 × 20.8cm

2017 레바논, 까디샤 계곡, 2017년 10월 7일, 13 × 20.8cm

2017 레바논, 까디샤 계곡, <올리브 나무>, 2017년 10월 7일, 20.8 × 13cm

2017 레바논, 브샤레, 신의 향나무, 2017년 10월, 13 × 20.8cm

2017 레바논, 브샤레, 신의 나무의 발, 2017년 10월, 13 × 20.8cm

2017 한국, 달마산, 2017년 2월 20일, 13 × 20.8cm

2017 한국, 달마산, 2017년 2월 20일, 13 × 20.8cm

2017 한국, 울산 바다, 2017년 2월 23일, 13 × 20.8cm

2015 인도, 헤임쿤드, 2015년 8월, 9 × 14cm

2015 인도, 헤임쿤드, 2015년 8월, 9 × 14cm

2015 인도, 헤임쿤드, 2015년 8월, 9 × 14cm

2015 인도, 싯다르베타, 2015년 8월, 9 × 14cm

2015 인도, 싯다르베타, 2015년 8월, 9 × 14cm

2015 폴란드, 타트라산, 모르스키 오코, 2015년 3월 30일, 종이에 연, 18 × 36cm

2014 창 밖의 산들, 종이에 수채화, 18 × 36cm

2014 생안경 속 창들, 종이에 수채화, 18 × 36cm

Mothers

Chapter One Korean Mother 2017

Voice

Mother: Solmon Park

Mountain: Jungnak Choi

Words mountain written by: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Agnieszka Polska, Kumgang Sunim the head monk of the Seon Monastery of Mihwangsa, South Korea; Park, Jin Yeo, the woman who can see the future and the past, South Korea; Jeonhwan Cho

Special thanks to Jung Sun Beisjens
Thanks to Dongyoung Lee, Kim Kyungman, Kim Sora, Kimura Byol, Kim Stoker, Henk Slager
Produced by bak, Utrecht, The Netherlands
Supported by the Mondriaan Foundation
Translation: Shin Woo Kang

Chapter Two Bangladeshi Mother 2020

Voice

Mother: Jaeyoung Kim

Mountain: Jungnak Choi

Words mountain written by: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Agnieszka Polska, Kumgang Sunim the head monk of the Seon Monastery of Mihwangsa, South Korea; Park, Jin Yeo, the woman who can see the future and the past, South Korea; Jeonhwan Cho; Dario Escobar, hermit Qadisha Valley, Lebanon, Nabil Rahman

This work could not have been made without the help of Mrs. Sayrun and the field workers of Dutch Foundation Shapla Community.

Special thanks to: Nabil Rahman, Ahesha Sultana, Diana Campbell Betancourt, the entire Dhaka Art Summit team
Supported by the Mondriaan Foundation

Translation: Shin Woo Kang

Mountains

2020 Bangladesh, Sylhet, *Shah Sufi Syedhi Jahan. Gir*, Sylhet, 4 February, 2020, 13 × 20.8cm

2020 Bangladesh, Sylhet, Hori Pur, 3 February, 2020, 13 × 20.8cm

2020 Bangladesh, Sylhet, Hori Pur, 3 February, 2020, 13 × 20.8cm

2020 Bangladesh, Lala River, Shari, 3 February, 2020, 13 × 20.8cm

2017 Lebanon, Qadisha Valley, *Cave of Dario Escobar*, 7 October 2017, 20.8 × 13cm

2017 Lebanon, Qadisha Valley, *Cave of Dario Escobar*, 7 October 2017, 13 × 20.8cm

2017 Lebanon, Qadisha Valley, *Cave of Monk Marina/Marino*, 7 October 2017, 13 × 20.8cm

2017 Lebanon, Qadisha Valley, 7 October 2017, 13 × 20.8cm

2017 Lebanon, Qadisha Valley, 7 October 2017, 13 × 20.8cm

2017 Lebanon, Qadisha Valley, 7 October 2017, 13 × 20.8cm

2017 Lebanon, Qadisha Valley, *Olive Tree*, 7 October 2017, 20.8 × 13cm

2017 Lebanon, Bcharre, Cedars of God, October 2017, 13 × 20.8cm

2017 Lebanon, Bcharre, The Feet of the Trees of God, October 2017, 13 × 20.8cm

2017 South Korea, Dharma Mountain, 20 February 2017, 13 × 20.8cm

2017 South Korea, Dharma Mountain, 20 February 2017, 13 × 20.8cm

2017 South Korea, Ulsan Sea, 23 February 2017, 13 × 20.8cm

2015 India, Hemkund, August 2015, 9 × 14cm

2015 India, Hemkund, August 2015, 9 × 14cm

2015 India, Hemkund, August 2015, 9 × 14cm

2015 India, Siddarbata, August 2015, 9 × 14cm

2015 India, Siddarbata, August 2015, 9 × 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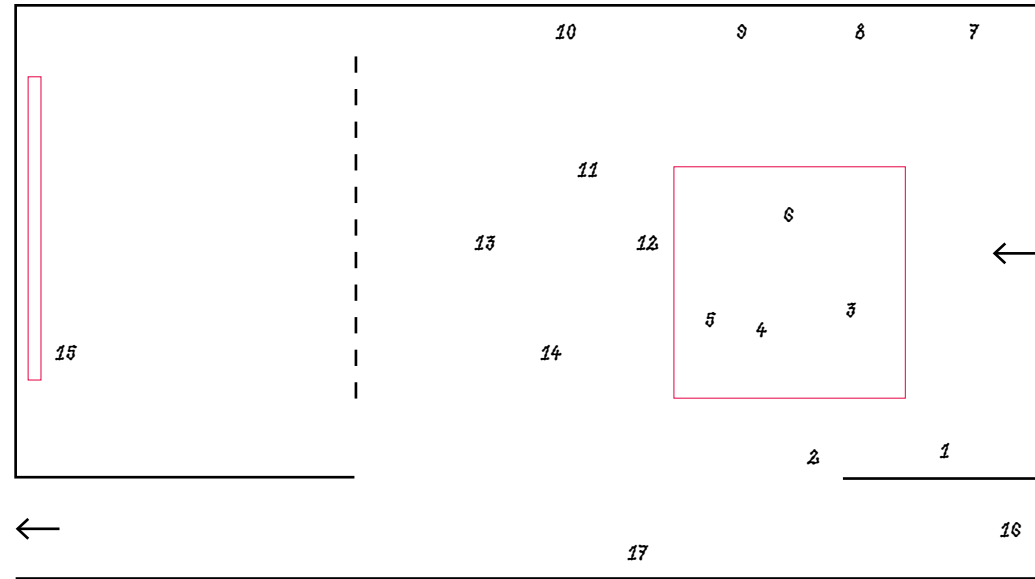
2015 Poland, Tatra Mountain, Morski Oko, 30 March 2015, pencil on paper, 18 × 36cm

2014 Mountains window, watercolour on paper, 18 × 36cm

2014 Mountains binocular, watercolour on paper, 18 × 36cm



곽영준
Young Joon Kwak



- 1**
<팬텀 베어(자신)>, 2022
종이에 연필, 102×81 cm
- 2**
<헤르마프로디토스의 폭로 III>, 2018-21
화이버글래스 레진, 냉각 주형 양은,
133×122×58 cm
- 3**
<헤르마 에르퀼란>, 2017
피그먼트 플라스틱, 레진, MDF, 104×41×46 cm
- 4**
<라이딩(Lying) 헤르마프로디토스>, 2017
화이버글래스, 레진, 아크릴, 투명 아크릴 스프레이,
175×61×33 cm
- 5**
<성스러운 파멸 (나의 얼굴) II>, 2022
(얼굴) 라인석, 글리터, 레진, 냉각 주형 양은,
피그먼트 왁스, 결이형 기물 / (손) 냉각 주형 양은,
철 자물쇠, 체인, 28×17×13 cm

6
<헤르마프로디토스의 폭로 I>, 2017
화이버글래스 직물, 레진, 주조 레진, 금 에나멜,
107×71×84 cm

- 7**
<헤르마프로디토스의 폭로 II>, 2017
화이버글래스 직물, 레진, 에폭시 점토, 은박,
페인트, 99×61×18 cm
- 8**
<순종적인 스파르타 전사의 흥감>, 2021
라인석, 글리터, 레진, 나무, 119×69×28 cm

9
<스파르타의 각인 (토르스)>, 2021
종이에 유성잉크, 나무 액자, 150×107 cm

10
<감시경 버자이니스 III>, 2020
화이버글래스 레진, 아크릴 감시경, 흙, 돌, 금박,
폴리스티렌, 165×102×34 cm

11
<성스러운 뽀뽀>, 2021
라인석, 글리터, 레진, 피그먼트 왁스, 결이형 기물,
38×64×18 cm

12
<뽀뽀>, 2021
종이에 유성잉크, 57×86 cm

13
<브라운 레인보우 이클립스 익스플로전>, 2017
주조 알루미늄, 용접 알루미늄 로드, 레진, 유리
거울 타일, 아크릴 거울, 에폭시 퍼티, 아크릴, 모터,
철 사슬 및 기물, 주문 제작 LED 조명, 그림자,
79×79×79 cm

14
<성스러운 쿼어 미래를 위한 원우>, 2022
우레탄 레진, 동관, 라인석, ø 120 cm

15
<솔로우 댄스>, 2013
3 채널 HD 비디오, VHS, HD 비디오 변환 사운드,
14분 20초. 크리스토퍼 리치몬드 협업

16
<천천히 불사르기>, 2015
HD 비디오, 8분 20초

17
<아, 마치 그렇게!>, 2012
HD 비디오, 2분 21초

1
Phantom Bear (Self), 2022
Pencil on paper, 102×81 cm

2
Hermaphroditus's Reveal III, 2018-2021
Fiberglass resin, cold-cast nickel silver,
133×122×58 cm

3
Herma Herculine, 2017
Pigmented plaster, resin, MDF,
104×41×46 cm

4
Lying Hermaphroditus, 2017
Fiberglass, resin, acrylic paint, clear
acrylic spray, 175×61×33 cm

5
Divine Ruin (My Face) II, 2022
(face) Rhinestone, glitter, resin, cold-
cast nickel silver, pigmented wax medium,
hanging hardware / (hand) cold-cast
nickel silver, leather cuff, metal lock, chain,
28×17×13 cm

6
Hermaphroditus's Reveal I, 2017
Fiberglass cloth, resin, cast resin, gold
enamel, 107×71×84 cm

7
Hermaphroditus's Reveal II, 2017
Fiberglass cloth, resin, epoxy clay, silver
leaf, paint, 99×61×18 cm

8
Buxom Sparty Breastplate, 2021
Rhinestones, glitter, resin, wood,
119×69×28 cm

9
Spartan Impression (Torso), 2021
Oil-based ink on paper, wood frame,
150×107 cm

10
Surveillance Mirror Vaginis III, 2020
Fiberglass resin, acrylic surveillance
mirror, dirt, rocks, silver leaf, polystyrene,
165×102×34 cm

11
Divine 聖聖, 2021
Rhinestone, glitter, resin, pigmented wax,
hanging hardware, 38×64×18 cm

12
聖聖, 2021
Oil-based ink on paper, 57×86 cm

13
Brown Rainbow Eclipse Explosion, 2017
Cast aluminum, welded aluminum rods,
resin, glass mirror tiles, acrylic mirrors,
epoxy putty, acrylic paint, motor, steel
chain and hardware, custom LED light,
shadow, 79×79×79 cm

14
Circle Dance of Divine Queer Futures,
2022
Urethane resin, copper tubing,
rhinestones, ø 120 cm

15
Slow Dance, 2013
3-channel HD video, VHS, sound
transferred to HD video, 14 min 20 sec. In
collaboration with Christopher Richmond

16
Burn Slow, 2015
HD video, 8 min 20 sec

17
Uh, As If!, 2012
HD video, 2 min 21 sec

1

팬텀 베어(자신)

<팬텀 베어 (자신)>은 자신의 온몸에 털을 붙이고 이를 찍은 사진을 다시 드로잉으로 그린 작품이다. 베어는 게이 문화에서 체적이 큰 남자나 남성성을 지칭하는 단어다. 작품은 작가 자신이 몸에 털을 붙이고 남성성을 드러내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신체라는 개념의 유동성을 지시한다. 신체라는 물질적 표피는 언제나 유연하게 변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언제나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우리 안의 모순과 불안정함을 포용하고, 모종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자유롭게 상상할 것을 제안한다.

2

헤르마프로디토스의 폭로 III

<헤르마프로디토스의 폭로> 시리즈의 헤르마프로디토스는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양성구유 자손이다. 그는 기원전 4세기의 조각에서는 유방이 큰 미청년으로, 후세에서는 페니스가 달린 미녀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작가는 오늘날의 헤르마프로디토스의 모습에 대해 상상하고 다양한 이미지로 재현하며,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크로스드레서의 모습을 중첩시킨다.

3

헤르마 에르퀼린, 2017

<헤르마 에르퀼린>은 그리스, 로마 시대 사각형의 각주 형태로 남성의 얼굴과 성기를 조각해 건물 입구에 세워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전통 조각 헤르마와 인터섹스(간성)이었던 프랑스인 에르퀼린 바르뱅(Herculine Barbin, 1838-1868)의 이름을 합성한 작품이다. 작가는 남성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헤르마 조각과 에르퀼린의 이야기를 작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자웅동체의 성기와 손의 제스처를 하나의 헤르마로 조각함으로써 작가는 이분법적 젠더의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또한, 성의 개념을 새롭게 고찰하며 이분법적 성 분류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급진적 신체가 지니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4

라잉(Lying) 헤르마프로디토스

<라잉(Lying) 헤르마프로디토스>는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조각인 <잠자는 헤르마프로디토스>와 동일한 포즈를 취한 지인의 모습을 하이버글래스로 캐스팅한 작품이다. ‘누워있는’과 ‘거짓말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이 작품은 누워있는 그리스 조각을 패널에 기대도록 세워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사회적 압박에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5

성스러운 파멸 (나의 얼굴) II

작가 자신의 얼굴을 판형으로 떠낸 조각 작품이다. 조각의 안쪽에는 작가의 얼굴이 있고 반대면에는 라인식으로 장식이 되어있다. 신체란 표피이고 껍질일 뿐이며, 우리는 표면을 너머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봐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6

헤르마프로디토스의 폭로 I

7

헤르마프로디토스의 폭로 II

8

순종적인 스파르타 전사의 흉갑

9

스파르타의 각인 (토르소)

<순종적인 스파르타 전사의 흉갑>은 작가가 미시간주립대학(MSU) 비판인종학과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기간에 작업한 작품이다. 작가는 강인함의 상징이자 대학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한 스파르타 조각을 연구했다. 이때 스파르타 조각의 주물을 뜨며 조각의 귀여운 요소들을 발견했다. 작가는 신체란 고정된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유동적인 정체성을 담은 그릇일 뿐이라고 말한다.

조각과 함께 전시된 것은 조각의 원 모델인 대학교의 스파르타 조각의 주물을 다시 실리콘으로 판형을 떠 찍어낸 판화작업이다. <스파르타의 각인 (토르소)>에서 원래의 스파르타 조각의 형태는 더욱 변형되어 나타난다.

작가는 우리의 몸을 정의 내리는 것은 고정된 관념으로 재현된 신체가 아니라 무형의, 유동적인 상상력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상력이야말로 아름다움, 젠더, 인종, 나아가 가부장적인 타자의 시각에서 소외된 신체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10

감시경 버자이니스 III

여성의 성기는 역사에서 가장 타자화된 신체 부위 중 하나이다. 동시대 상업사회 문화에서 여성의 성기는 상품화 되었고, 미술의 역사에서도 대상화되어 왔다. 작가는 여성의 성적인 욕망을 극도로 과장되게 표현해온 역사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여성의 외음부 모양으로 조각된 <감시경 버자이니스 III>에는 거울이 들어있다. 이 거울은 타자화된 시각으로 귀어와 트랜스젠더를 쳐다보았던 우리의 시각을 투영한다. 신체에 달린 성기가 아닌 다양한 정체성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다. 외음부 안쪽 표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체의 대상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손, 우리가 포용하지 못해 주변부로 밀려난 공동체의 손짓이 담겨있다. <감시경 버자이니스 III>은 흙과 돌을 재료로 삼아 만들어졌는데 이는 폐기된 플라스틱이 자연 퇴적물이 뒤엎겨 새로운 지질학적 물질을 만들어내는 ‘플라스티글로머리트(플라스틱과, plastiglomerate)’ 현상의 산물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료와 자연의 물질이 혼종적으로 뒤섞이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듯하다.

11

성스러운 뽀뽀

12

뽀뽀

<성스러운 뽀뽀>는 작가의 지인 두 명의 입맞춤을 조각한 작업이다. 정면뿐 아니라 반대면도 감상할 수 있게 조각한 이 작품은 안과 밖으로 각각 제시되는 모습처럼 서로 다른 모습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조각을 다시 한번 실리콘으로 주물을 뜨고 판화로 찍어내기도 한다. 함께 전시된 프린트 작품은 하나의 모습이 여러 매체와 각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하나로 정의 내려질 수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존으로서 신체의 의미를 재고한다.

13

브라운 레인보우 이클립스 익스플로전

<브라운 레인보우 이클립스 익스플로전>은 파편으로 조각난 디스코볼을 조각으로 형상화한다. 작품은 파편으로 흩어진 조각들을 디스코볼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되묻는다. 고장 나고 조각난 것들 위에 비치는 빛은 아름답고 평등하다. 이 작품은 형태의 외관을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우리의 인식에 질문을 던지며 어떤 정의에도 속하지 않은, 그 틈 사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디스코볼은 게이 클럽의 밤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불빛 아래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표현하고 열망을 표출하는 모습, 나아가 LGBTQIA+ 커뮤니티의 인권과 자유의 은유이기도 하다.

14

성스러운 귀어 미래를 위한 원무

<성스러운 귀어 미래를 위한 원무>는 손들이 서로를 붙잡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원형의 조각 작품이다. 작가에게 있어 귀어란 단순히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대하는 유연함과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더 나은 귀어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며 이분법적 젠더, 이성애적, 가부장적인 사회 관습과 제도에서 소외되고 부정당한 이들을 끌어안는 몸짓을 보여준다. 손과 손을 맞잡는 행위는 서로 다른 영혼을 지니고 태어나 과거의 과오와 차별에 함께 맞서는 우리들을 이어주는 공동체로서의 공감과 연대를 의미한다.

15

슬로우 댄스

<슬로우 댄스>는 이성애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전통적 가정에서 낯설고 어색하며 혼란스러워 하는 등장인물의 움직임을 담아낸 영상 작품이다. 느리고 절묘하게 움직이는 인물을 통해 ‘집’에 대한 전통적 개념,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분법적 젠더에 대한 권태감과 불쾌함을 포착한다. 영상은 관람객을 은밀한 공간으로 초대하는 듯이 연출됐다. 가까이서 등장인물을 훑쳐보는 행위는 다른 이들의 삶을 엿보는 듯한 관음증적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화면을 통해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서로의 차이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동시에 친밀해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험하게 한다.

천천히 불사르기

아, 마치 그렇게!

<천천히 불사르기>와 <아, 마치 그렇게!>는 작가의 또 다른 자아이자 밴드인 '지나 저너(Xina Xurner)'의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 작품이다. 뮤지션 마빈 아스토르가(Marvin Astorga)와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지나 저너는 미국의 가수 티나 터너(Tina Turner)를 오마주한 이름이다. 지나 저너가 들려주는 노래는 고통과 기쁨, 웃음 같은 감정, 성적인 욕망을 분출한다. 또한 그의 노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했던 트라우마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들려주는 음악은 죽음, 부패와 좌절에 대한 노래들이기도 하다. 지나 저너는 <뮤턴트 살롱>과 같은 커뮤니티 협업을 통해 소외된 이들이 스스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을 조성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온몸이 진흙에 뒤덮인 지나 저너가 울부짖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담은 <천천히 불사르기>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내면의 치열하고 처연한 분노와 아픔을 쫓는 몸짓으로 작가의 말을 빌어 "퇴마적인 의식"이기도 하다. <아, 마치 그렇게!>는 진흙을 터는 손의 움직임만을 클로즈업해서 보여 준다. 여성적이면서도 동성애적인 제스처를 은유하는 이 손짓은 가부장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제도를 향한 저항의 움직임이다.

Phantom Bear (Self)

Phantom Bear (Self) is a drawing based on a photograph of the artist putting artificial hairs all over their body. The word bear is used as a term for a rugged masculinity in gay culture. The portrait of the hairy artist subverts masculinity asserting us to re-examine the materiality of the body. The meaning of the body as the outermost layer of skin can always be modified and reinterpreted. The drawing, therefore, seeks to find the freedom of imagination and flexibility to embrace and change the contradictions and insecurities within us.

Hermaphroditus's Reveal III

In Greek mythology, Hermaphroditus was a two-sexed child of Hermes and Aphrodite. The exhibition showcases Kwak's *Hermaphroditus's Reveal* series. In the 4th century BC, Hermaphroditus was initially portrayed as a young male figure with big breasts and later depicted as a beautiful young girl with male genitalia. Kwak's reimagination of Hermaphroditus superimposes the representations of transgender, transsexual, and cross-dresser in the present day.

Herma Herculine

Herma Herculine takes its name from Herculine Barbin(1838-1868), a French intersex person, known as a hermaphrodite. A Herma was a rectangular pillar in ancient Greece and Rome featuring a male head and genitals. Placed at the entrance of a building, the pillar was believed to ward off evil spirits. Here, the artist reinterprets the story of the Herculine and Herma statue, which was a symbol of masculinity and strength. By sculpting a hermaphrodite's penis and its hand as one Herma, Kwak not only dissects traditional notions of gender binary, but also probes a broader range of gender identity, offering the new possibility of a radical body form that challenges the binary gender categorization.

Lying Hermaphroditus

Lying Hermaphroditus is a fiberglass body cast lying in a pose reminiscent of the *Sleeping Hermaphroditus*, a Greek sculpture of the 2nd century BC. The sculpture of a reclining body stands upright against the wall in defiance of pressures to reveal one's gender identity.

Divine Ruin (My Face) II

Casting the artist's own face, the sculpture has the face in one side in negative mold and on the other side decorated with rhinestones. This work indicates that we need to consider our own bodies as a trace, a landmark and reconsider all bodies beyond the skin.

Hermaphroditus's Reveal I

Hermaphroditus's Reveal II

Buxom Sparty Breastplate

Spartan Impression (Torso)

The artist created *Buxom Sparty Breastplate* during the artist's residency program in Critical Race Studies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Kwak found elements pertinent to queer bodies in sculpture while she was studying and casting "the Spartan," the statue of Michigan State's mascot representing strength. Body is a vessel that holds a personal identity that cannot be defined by social structure as well as an extremely political space where an individual identity conflicts with social standards. Such body politics lay the foundation for overcoming heteronormative perspectives and understanding queered and transgendered bodies.

Exhibited along the sculpture is *Spartan Impression (Torso)*, a print made from a silicone mold of the University's Spartan statue. The printed version is a deconstructed cast of the

Spartan's body. The artist believes that the definition of the body tends to be confined to fixed point of views. Kwak insists, instead, that this definition should be based on flexible imagination rather than the palpable, reproduced body and using this imagination, we can embrace all types of bodies that have been isolated within the frameworks of beauty, gender, race, and also by westernized and patriarchal perspectives.

10

Surveillance Mirror Vaginis III

Historically, female genitalia is one of the most objectified parts in the female body. In contemporary commercial society, women's reproductive systems have been commodified and, in the history of art as well, objectified. Through the work, the artist criticize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portrayal of women's sexual desire. Sculpted like a female vagina, *Surveillance Mirror Vaginis III* holds a mirror inside reflecting how queer women and transgender people are sexually objectified. Negating the threat of surveillance on transgender people's genitals, the work confronts and reflects how we view the diversity of gender identity. The inner skin of the vagina depicts the hands and gestures of the sacrifices that transgender people are forced to make in the process of objectification. Composed of grains of sand and rocks, *Surveillance Mirror Vaginis III* implies the plastiglomerate, a recent geological phenomenon that unites natural debris and melted plastic. The process of mixing artificial material and organic sediment alludes to the nature of hybridity in the history of the human being.

11

Divine ㅁㅁㅁㅁ

11

ㅁㅁㅁㅁ

Divine ㅁㅁㅁㅁ is a cast of two people kissing each other. Normally, viewers only get to see the surface of sculptures. By reveal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sculpture, the work expresses

the coexistence of diverse inner and outer surfaces. Kwak also created a print version using a silicon mold.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interpreting one object in different media and perspectives, the artist shows that the body cannot be fixated on one definition but remains a present form that constantly changes.

13

Brown Rainbow Eclipse Explosion

Brown Rainbow Eclipse Explosion takes the form of a sculpture using a deconstructed disco ball with fragments in which the artist explores if each fragmented piece by itself can be understood as a disco ball. The lights bouncing off the broken fragments are beautifully and evenly distributed on their surfaces. The work confronts the viewers with how they judge things by their outer appearance, raising questions about those that cannot be sorted into categories but remain unlabeled. Moreover, Kwak employs the disco ball as a metaphor for the freedom and the rights of LGBTQIA+ community, symbolizing the nightlife in gay bars and clubs where people are able to release their desires through dance and expression.

14

Circle Dance of Divine Queer Futures

Circle Dance of Divine Queer Futures is a circular sculpture with a structure of hands holding each other. This work is an embrace of those who are alienated and unjustified in binary, heterosexual, and patriarchal systems, arguing for queerness as a future-oriented, profoundly utopian mode of being and doing in the world. As a community made up of various identities, the act of holding hands together creates empathy and solidarity, symbolizing a confrontation of past mistakes and discrimination, referencing historical liberation of struggles and collectivity.

15

Slow Dance

Slow Dance depicts a discomfited central figure awkwardly moving through a heteronormative

domestic space. The slow and subtle movements of the character capture traditional ideas of "home" as well as gendered ennui and dysphoria in everyday life. Created as an invitation into the figure's intimate space, the film evokes a feeling of isolation and anxiety. Looking closely at the figure through the screen gives audiences a sense of glancing into the figure's life. The description of one's most private space reveals that the process of intimacy, though often uncomfortable, is necessary to overcome biases and differences in relationships.

16

Burn Slow

17

Uh, As If!

Both *Burn Slow* and *Uh, As If!* interpolate a performance by the band Xina Xurner, a music collaboration between Kwak and Marvin Astorga. Xina Xurner also refers to an alter ego of Kwak whose name is an homage to the American singer, Tina Turner. The song of Xina Xurner evokes pain, desire, sexuality, joy, and laughter. The music all starts from the trauma of having to embrace an identity that is forced upon us. It is also a song about death, decay, and despair. By developing a platform for community collaborations such as *Mutant Salon*, Xina Xurner creates a space in which marginalized voices can freely communicate and respond to each other.

Burn Slow is a slow motion video featuring Xina Xurner screaming and covered with mud. Although the video is muted, viewers witness an exorcism that drives out internalized fury and pain from the figure. *Uh, As If!* presents the movements of hands cleaning the mud in close-up shots. As a metaphor for female homosexuality, the hand gestures are resistances against patriarchal and homophobic social structures.



곽영준

곽영준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카고예술대학에서 학사, 시카고대학교와 남가주대학교(USC)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업 중이다. 그녀/그들(her/them)로 불리는 작가는 2020년 미국한국예술재단(KAFA)상을 수상해 2021년에는 LA한국문화원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워터필립스미술관(2018), 해머미술관(2016), 브로드미술관(2016)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다. 지나 저너(Xina Xurner)라는 예명 하에 퍼포먼스 예술가로도 활동하며 젠더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신체의 혼성성을 실험한다.

장세진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은 한국계 네덜란드인으로 베를린에서 작업 중이다. 암스테르담 예술학교와 아르테즈예술학교(AKI)에서 수학하고 더 아틀리에에서 대학원 과정을 졸업했다. 스톡홀름근대미술관(2022), CASCO(2021), ARGOS(2020)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베를린비엔날레(2020),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2018)에서의 그룹전에 참가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된 역사를 해체하고 개인의 경험과 공동체로서의 치유 과정을 작품의 근간으로 삼아 작업한다. 2022년 9월 개막하는 부산 비엔날레에 참가할 예정이다.

Young Joon Kwak

Born in the USA, Young Joon Kwak is based in Los Angeles. The artist goes by she/they pronouns. They received an MFA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an MA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2021, Kwak had a solo show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Los Angeles on the occasion of the 2020 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 (KAFA) Award. Their solo and group exhibitions were held at Walter Phillips Gallery (2018), Hammer Museum (2016), and The Broad (2016). Kwak also performs as a noise-dance band called Xina Xurner, whose performances represent transformation and survival of one's body.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A Korean-Dutch artist, Sara Sejin Chang is currently based in Berlin. Chang studied at the Amsterdam University of the Arts and the AKI Academy of Art & Design in Enschede and graduated from De Ateliers, Amsterdam. The artist held her solo exhibitions at Moderna Museet in Stockholm (2022), CASCO (2021), and ARGOS (2020). She participated in Berlin Biennale (2020) and a group exhibition at Stedelijk Museum Amsterdam (2018). Chang's practices involve dismantling European-centric historical narratives and uses individual experiences and healing processes as the basis of her work. She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2022 Busan Biennale.

전시 연계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5월 19일(목) 4시

작가: 곽영준,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모더레이터: 김재석(갤러리현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해주(부산비엔날레 감독)

라운드테이블

<트래버스: 젠더, 디아스포라, 기억>

협력: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6월 11일(토) 2시

배주연(서강대학교 교수, 모더레이터),

오혜진(문학평론가), 조해진(작가), 김일란(영화감독)

공공프로그램 토크

<한국인, 젠더, 섹슈얼리티의 혼종적 구성:

규범의 계보 다시 보기>

6월 25일(토) 2시

루인(퀴어페미니즘 연구자)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캔디/윤다림(ILGA ASIA 공동의장)

남웅(인권운동가, 미술평론가)

Exhibition Related Program

Artist talk

May 19 (Thu) 4PM

Artists: Young Joon Kwak,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Moderator: Jae-seok Kim (Creative Director,

Gallery Hyundai), Haeju Kim (Artistic Director,

Busan Biennale 2022)

Roundtable

< Traverse: Gender, Diaspora, Memory >

In cooperation with CGSI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Sogang University

June 11 (Sat) 2PM

Juyeon Bae (Moderator / Professor, Sogang

University), Hyejin Oh (Literary critic), Haejin Cho

(Writer), Il-rhan Kim (Film director)

Public Talk Program

< Hybrid constitution of Korean, gender and

sexuality: Re-examining the pedigree of

categorization >

June 25 (Sat) 2PM

ruin (Queer Feminism Researcher)

Jihak Kim (Executive Director of Diversity Korea)

Candy/Darim Yun (Co-Chair of ILGA Asia)

Nam Woong (Activist, Art critic)

ALL ABOUT

ALL ABOUT LOVE

ALL ABOUT LOVE

ALL ABOUT LOVE

ALL ABOUT LOVE

ALL ABOUT LOVE

ALL ABOUT LOVE

ALL ABOUT LOVE

ALL ABOUT LOVE

ALL ABOUT LOVE